

오너 3·4세 경영 리더로 약진... 식품업계, 인적쇄신 속도

CJ그룹, 이례적 CEO인사 선제 단행
이재현 장남 이선호 승진여부 관심

오뚜기 3세 함윤식씨, 핵심부서 순환
실무경험으로 차세대리더 입지 다져

삼양라운즈스퀘어 오너 3세
전병우 상무, 올해 승진 가능성 거론

국내 식품업계의 인사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과 실적 위기로 인적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미 CJ그룹이 CEO 인사를 앞당기며 신평단을 쓴 만큼 다른 기업들도 경영 리더십 재편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CJ그룹은 지난 17일 윤석환 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부문 대표를 CJ제일제당 CEO로, 이견일 CJ프레시웨이 대표를 CJ푸드빌 CEO로 각각 내정했다. 그룹 차원에서 CEO 인사만 선제적으로 단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동안 CJ는 매년 말 진행하는 정기 임원 인사에서 CEO 교체, 신입 경영리더 승진, 조직 개편 등을 동시에 시행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이를 분리해 진행하며 2026년 정기 인사부터는 계열사 주도형 인사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선호
CJ 미래기획실장(경영리더)



전병우
삼양라운즈스퀘어 전략총괄(상무)



신상열
농심 미래사업실장 전무

이같은 변화는 경영권 승계와 세대교체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그룹 차원보다는 각 계열사의 독립 경영 체제를 강화하고 젊은 리더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인 것이다.

임원 인사의 최대 관심사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 미래기획실장(경영리더)의 승진 여부다. 이 실장은 지난달 약 6년 만에 지주사로 복귀해 경영 보폭을 넓히고 있다. 그가 이끄는 미래기획실은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신사업 전략 수립을 총괄하는 핵심 조직으로 중책을 맡았다. 복귀 시점이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당장은 조직 안착과 성과 창출에 주력할 것이라는 시

각이 우세하지만, 올해 인사에서 승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CJ그룹은 신규 경영리더 승진 중심의 후속 인사를 예고한 상태다. 실제로 CJ는 지난해에도 21명의 신입 경영리더를 신규 선임하며 ‘리더 육성 트랙’을 본격화한 바 있다. 현재 각 그룹은 내부적으로 인사 시점을 조율 중이며, 빠르면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단행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경영 전면에 본격 등판한 오너 3~4세들의 약진도 예상된다.

오뚜기 오너 3세인 함윤식 씨는 지난 4월 말 경영관리부문 차장에서 마케팅 실 부장으로 승진하며 경영 전면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2021년 사원으로 입사한 지 4년 만이다.

전략기획, 생산관리, 경영관리 등 핵심 부서를 순환하며 실무 경험을 쌓아온 만큼 내부에서는 그가 경영 전반의 흐름을 익히며 차세대 리더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경영관리에서 마케팅으로 보직을 옮긴 점은 향후 오뚜기의 브랜드 전략 및 글로벌 사업 확대 방향과 맞닿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장녀 함연지 씨는 지난해 오뚜기 아메리카에서 마케팅 업무 담당 정규 입사자로 근무하고 있다. 남편 김재우 씨도 2018년 입사 후 현재 오뚜기 아메리카에서 근무하는 등 경영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불닭볶음면’ 브랜드로 승승장구 중인 삼양라운즈스퀘어의 오너 3세 전병우 전략총괄 상무는 지난해 인사에서 자리를 지켰지만, 올해는 승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전 상무는 25세였던 2019년 삼양식품 해외사업본부 부장으로 입사해 1년 만에 이사로 승진하며 임원이 됐다. 삼양식품은 올해만 여러 차례 수시 인사를 통해 공격적으로 인재를 영입했다. 삼성전자 출신 경영관리 전문가 전수홍

상무, 전략 마케팅 전문가 김선영 본부장, 그리고 지난달 글로벌 소비재 경력 25년의 김기홍 전무를 잇따라 선임했다.

농심의 오너 3세로 신동원 회장의 장남인 신상열 미래사업실장은 지난해 전무로 승진해 근무하고 있다. 웰니스·건강식품 등 신사업을 추진하고 자율복장 제도를 선도하는 등 조직문화를 젊게 만드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SPC그룹은 허영인 회장의 장남 허진수 사장과 차남 허희수 부사장의 ‘투톱 체제’로 차세대 경영을 이끌고 있다. 허 사장은 그룹 글로벌BU장으로 해외 사업을 총괄하며 파리바게뜨·던킨·배스킨라빈스 등 브랜드의 글로벌 확장을 이끌고 있으며, 허 부사장은 신사업과 디지털 전환·해외가맹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주요 식품기업들이 지배구조 개편과 조직 효율화를 통해 차세대 경영 기반을 다지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임원 인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며 “연말 인사가 단순한 세대 교체를 넘어 향후 10년 한국 식품산업의 권력지형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이재용·최태원 등 총수, 트럼프와 골프회동

트럼프, 韓·日·대만 기업 대표 초청
수장들-트럼프 대화내용에 초집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기업 총수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해 일본·대만 기업 대표들을 자신이 소유한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 초청해 한나절에 걸쳐 골프를 치며 시간을 함께 했다. 이번 골프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이 깊은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7분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출발, 8분 뒤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장에 도착한 후 각 조가 각 홀에서 동시 티오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트럼프 대통령 국내 경제인 대화’가 열려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당시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대기업 총수 20여 명이 참석했다. /뉴시스

하는 ‘샷건’ 방식으로 라운딩이 시작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마추어 골프 경기는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가자단의 확인 요청을 거부했다.

한·미 정부가 관세 협상을 진행중인 가운데, 한국 정부 ‘측면 지원’에 나선 기업 수장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대화를 나눴을 지도 관심이 쏠린다.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

후나 휴식 시간을 이용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 김동관 부회장 등은 지난 7월말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 정부의 관세 협상을 지원한 바 있다. 다만 현장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날 라운딩에 참여한 기업인들은 경기가 끝난 뒤 점심 리무진 버스를 타고 단체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훈 기자 ysw@

21일 국내 첫 ‘APEC 재무장관회의’

인천 영종서 사흘간 개최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가 열린다. 올해 APEC 의장국 자격이다. 정부는 APEC 정상회의의 개

최 전 마지막 장관급 회의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선도하는 리더십을 선보이고, 회의 성과 및 분위기를 정상회의까지 끌고 간다는 방침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PEC 재무장관·구조개혁장관회의가 오는 21~

23일 사흘간 인천 영종 인스파이어리조트에서 개최된다.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다. 이달 31일 경주에서 예정된 APEC 정상회의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다.

APEC 21개 회원국에서 모인 고위 경제관료들은 올해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정·금융·구조개혁의 역할을 논의하게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연명의료 관리 위탁기관 늘어나는데 공용윤리위 인력·예산 제자리 걸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권역별 13곳에 공용윤리위 설치
협약기관 7년간 51곳→216곳 확대
담당직원 13명 중 정규직 5명 불과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권역별로 공용윤리위원회(공용윤리위)를 설치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기관이 위탁협약을 맺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예산과 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공용윤리위 연명의료결정’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용윤리위 13개소별 위탁협약을 맺은 종합병원, 병원, 요양기관의 수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은 제도 시행 8년 차에 접어들었는데도 여전히 정체 상태였다.

정부는 치료 효과가 전혀 없이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향서)’를 보건소, 복지관 등 등록기관에서 받고 있다. 의향서는 현재 2025년 9월 기준 306만9584명이 작성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임종기에 다다랐을 때, 의향서 작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다수의 임종기 환자가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요양병원의 경우 2025년9월 기준 1320곳 중 169곳(등록률 12.8%)만 의향서 작성 여부를 알 수 있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에 ‘공용윤리위’를 설치하고 의료기관이 별도의 비용 없이 위탁협약을 맺으면 의향서 작성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권역별로 13개소(강원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부산대·영남대·인하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이소요양병원)가 설치돼 있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9년 공용윤리위와 위탁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연도별로 51곳(2019년), 80곳(2020년), 89곳(2021년), 119곳(2022년), 157곳(2023년), 189곳(2024년), 216곳(2025년)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공용윤리위에 위탁협약을 맺은 의료기관 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13개소에 1명씩, 13명으로 그 중 정규직으로 고용된 직원은 5명에 불과했다. 공용윤리위별 위탁협약을 맺은 기관 수는 최소 7곳에서 31곳인데, 국립암센터의 경우 1명의 담당 직원이 의료기관 31곳을 담당하고 있다. 영남대학교 병원은 전담인력 1명이 27개 기관, 부산대학교 병원은 24개 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성숙된 만큼 여러 의료기관에서 관련한 수요가 확인되고 있으나, 권역별 공용윤리위의 현 상황은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해 인력의 적절한 배치와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